

오늘 처음 출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 오늘 1, 2부 예배는 고용일 목사님(선창교회 원로, 대전 서노회 공로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 **공동의회**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안건 – 신승헌 목사 위임 건
대리당회장 : 고용일 목사
3. **구역장·권찰훈련 모임** 토 오전 6시 10분 찬양대실, 수 오후 8시 40분 벨엘실
4. **교육부서 겨울행사안내** 기도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2. 17(금)~19(주), 교회, 테딘 워터파크(토)
②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2. 24(금)~25(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5. **더 드림(The Dream) 헌금약정** 교회의 장기 비전을 위해 적립되는 헌금입니다.
형편과 믿음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 17(금) 대전신학대학교 송민권, 차경아 전도사

*** 위임목사제도**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와 위임목사가 있습니다.
조직교회(당회구성)의 경우, 안정적인 목회사역을 위하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목사가 안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제도입니다.
- 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헌법 제27조 1항)
-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28조 2항)
- 공동의회 회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자(헌법 제 90조 1항)

- ◆ 더드림(The Dream)헌금 온라인 계좌번호 농협 351-0894-6839-03 (예금주: 행복한교회)
- ◆ 주차 주일 예배 시 주차는 교회 앞 차도와 보건지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 소식

1. 식사 감사 조성희 집사 명성남 성도 – 생일(조성희, 희승) 감사
2. 꽃꽂이 감사 권상만 집사 남춘임 권사 – 생일(권상만) 감사
3. 새 가 족 이용연 성도 – 구봉마을 8단지, 11구역, 2여전도회

◆ 주일 봉사

다 음 주(2.19)	식 사 – 8구역	미 화 – 9구역	섬김의 일꾼
-------------	-----------	-----------	--------

담임목사	신 승 헌		
장 로	김진훈 엄명섭	전 도 사	송진일, 송민권, 차경아
지 휘	최종길 백학기	반 주	조나현, 유정선, 엄지영, 차지연, 박지인

▷입 레 송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
▷예배의 부름	마 17:5
▷송 영	찬양대
▷기 원	인도자
▷경 배 찬 송	15장
▷성 시 교 독	5번 (시편 8편)
▷참 회 기 도	다같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38장 / 예수 우리 왕이여
기 도	1부 : 강재기 집사 2부 : 도형지 권사
찬 양	1부 : 천둥소리 찬양대 2부 : 임마누엘 찬양대
교 회 소 식	인도자
성 경 봉 독	이사야 6:1-8 (구약974면)
말 씬 선 포	소명과 헌신
	고용일 목사
▷응답의 찬송	320장(봉헌과 함께)
▷봉 헌 기 도	신승헌 목사
▷축 도	고용일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은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 쪽 헌금함에 봉헌해 주십시오.
다음주 기도: 1부 권상만집사 2부 최종길장로

❖ 찬양 예배

오후 2시	
기 도	김재승 집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4:25-35	
말씀선포	무리와 제자 송진일 전도사
찬 송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소식	신승헌 목사
• 찬 송 635장(주기도문)	
• 축 도 신승헌 목사	

❖ 향기로운 예물

주일헌금	강이채 강재구 강현주 고강식 구경희 구기창 권상만 김경실 김금순 김명곤 김선희 김성무 김영자 김요셉 김인숙 김재승 김준영 김진훈 김찬양 김현숙 김형설 김혜슬 남은순 남춘임 노만순 도형지 명현진 무명3 문명희 박다솜 박래혁 박상연 박성복 박양숙 방훈실 백재흠 백정흠 백학기 변수연 서동욱 송진일 신승헌 신춘조 양수정 양순직 양해룡 엄명섭 엄지영 엄지예 오태익 이가영 이가현 이명욱 이미라 이상욱 이선영 이순희 이승희 이재순 이진숙 이현순 이화자 임미경 임선욱 임송택 임수민 임순욱 장은영 장인희 전남이 전선경 전태중 정서희 조나현 조선구 조옥형 차경아 최경숙 최경애 최상욱 최은경 최종길 한상욱 함현숙 홍정의
십 일 조	김가은 김 강 김광식 김 산 김세연 김예은 김요셉 김은수 김인숙 김재승 김준서 김찬양 남은순 무 명 문명희 박세진 박영미 박진우 백재흠 백학기 양성연 양수진 이경자 이미라 이선영 이현순 임민채 임수민 임유원 전태중 조성희 차명신 최경애 한봉순
감사헌금	강재구 구가영 구기창 김금순 김명욱 김미화 김선희 김요셉 김진훈 김찬양 김현숙 김혜련 남은순 무명4 박래혁 박성복 박인혜 박지인 백학기 송진일 신승헌 신혜연 양성연 양수진 엄명섭 엄지영 엄지예 이순희 이지현 이현순 이화자 전남이 조선구 조양현 조옥형 조태훈 차주성 차주아 차주환 최경숙 최소영 한봉순 한상욱 홍정의 문명희 서동욱 이승희 장한별
건축헌금 (더드림)	구기창 권상만 김명곤 김예지 김예찬 김지훈 김진훈 김형설 도형지 박성복 백재흠 백정흠 백학기 송진일 이명욱 조성미 최경숙 최경애 한상욱
첫새벽 감사헌금	강재구 구가영 김금순 김명욱 김미화 김선희 김진훈 김현숙 남은순 도형지 문명희 박지인 백학기 송진일 신승헌 신혜연 엄명섭 엄지영 엄지예 이승희 이현순 장한별 조양현 조옥현 최경숙 한봉순 한상욱 홍정의
선교헌금	김재승 김혜련 도형지 문명희 백재흠 백정흠 백학기 신승헌 신춘조 양해룡 이미라 이순희 임미경 전태중 차명신 최경숙 최경애
장학헌금	10구역 1구역 4구역 6구역 백재흠 백정흠 최경숙 최경애
일천번제	구가영 구민경 구하라 차명신 차주성 차주환 차주아 무 명
성미헌금	구경희 김명신 김인숙 김현숙 남은순 도형지 이재순 조선구 조성희 조옥형 최경숙

❖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30분	
기 도	김명욱 집사
성경봉독 시편 14편	
말씀선포	무신론의 어리석음 신승헌 목사
합심기도	다함께
축 도	신승헌 목사
❖ 새벽 기도회	
월 ~ 토	오전 5시 10분
성경본문	누가복음 7~9장

❖ 새벽 기도회

월 ~ 토	오전 5시 10분
성경본문	누가복음 7~9장

❖ 구역 예배 교안

7. 가족옷의 은혜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너 시험을 당해”(새 342장, 통 395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3 : 1~24	
성경말씀 경청하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죄과를 뱀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 여자, 아담 각각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족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모두 ‘사망’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1)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5-7절).	
2) 하나님께서는 ‘가족옷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21절).	
성찰하기	
스튜어트 앤더슨 박사는 유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탐험가 바비 리치의 예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바비 리치는 원통 하나에 의지한 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런 시도를 하고도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지 몇 년 후, 그는 길을 가다가 그만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오래지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심하게 다쳤고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작은 유혹들이 우리를 곧잘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접근한 사탄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항하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유까지 제시합니다. “인간을 제한하여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억압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왜 그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큰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